

32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람

창 12:1~9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은혜찬송 169장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 성)

오늘 배울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모두 성취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창 12:1~4)



을 이해하기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으며,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한 민족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해 보면 모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람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는 실제로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서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 11: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He 11:8)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나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세 가지 복을 적어 봅시다(창 12:1~3).

1)

2)

3)

② 아브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들을 세어보고 적어 봅시다.

3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히 11:6, 8~10)?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적어 보고,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창 12:1

월

창 12:2

화

창 12:3

↑

삼상 15:22

↓

롬 10:17

↓

히 11:1

↓

히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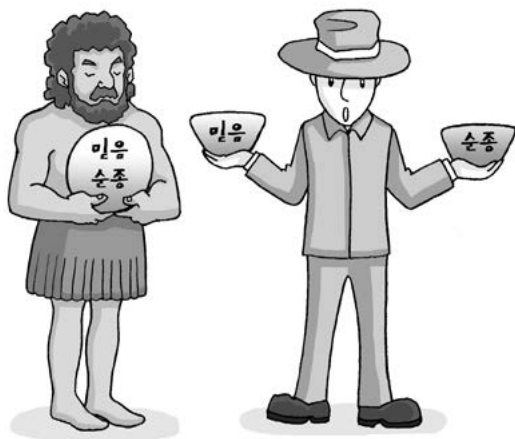
믿음과 순종

멕시코에 있는 쿠키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서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별하려는 문명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들 언어의 불완전성은 문명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오히려 문명인들이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뻔뻔스러운 존재, 즉 우리 자신을 외식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키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이 비록 미개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문명인들보다 진리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문명인들이 빠져 있는 자기분열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문명인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 2:24)



질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왜 계획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있을 사건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에덴동산처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롬 8:19~22).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축복의 땅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나(창 1:27~28),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세상을 다시 에덴동산처럼 회복하셔서 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창조 후 바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세상을 회복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림으로 원래 의도하셨던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위해서 일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천 년 동안 다스리시며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획하셨을 것입니다.